

천국은 마치

[오늘의 비유]

4강 .겨자씨와 누룩 비유 (마태복음 13:31-33)

돌아보기

1. “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.”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돌아본다면?
2. 지난 강의 때 기억에 남는 것은?
3. “겨자씨와 누룩 비유”를 읽고 느낀 점은?

📖 '겨자씨와 누룩 비유'(마 13:31-33) 읽기

- 개역개정 → 새번역 → 새한글 → 메시지 성경 등 다양한 번역으로 읽어
- 평행본문(막 4:30-32, 눅 13:18-21) 읽기

📖 '겨자씨와 누룩 비유'에 나오는 등장 인물과 장치

- 겨자씨(모든 씨보다 작은 것), 나무(큰 가지), 공중의 새들
- 여자, 가루 서 말, 누룩

📖 '겨자씨와 누룩 비유'의 문맥

-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중 세 번째, 네 번째 비유
- 마 11~12장 : 예수님을 의심하고, 무시하고 비난하는 악한 세대들
- 마 13장 : 천국 비유
- 마 13:57-58 : 예수를 배척, 믿지 않음

📖 주후 1세기의 정치적, 사회적 상황

- 1세기 팔레스타인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고, 분봉왕에 의해 경제적인 착취와 불안정이 심한 상태
-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며, ‘하나님 나라’를 정치적 해방과 민족적 회복으로 생각함
- 유대 묵시문학이나 열혈당원들이 상상한 하나님 나라는 한순간에 세상을 뒤집어엎는 정치적인 대혁명

📖 주후 1세기 상황에서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

- 실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겨자씨와 누룩
- 너무 흔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일상의 것
- 일부로 자기 밭(정원)에 겨자씨(일년생의 야생 식물)를 심는 사람은 없다. (레 19:19)
(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, 익숙한 질서, 관습, 편안한 삶을 흔드는 이야기)
- 겨자풀이라는 말을 쓴다. 그런데 큰 나무라고 말하니 충격이다. (성전의 레바논 백향목과 대조)

- 누룩은 부정과 불결을 의미함(출 12:15, 마 16:6, 고전 5:7) (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)
- 여자는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는데,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.
- 그리고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등장하는 것 자체도 충격적이다.
- 가루 서 말 : 많은 양(대략 100명 이상 먹을 수 있는 양, 다양한 이들을 초대하여, 큰 잔치를 준비함)

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예수님

- 예수님은 당대 권력자들처럼 크고 화려하지 않고,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약하게 여겨졌다.
- 그 당시 지도자들(바리새인, 서기관 등)에게는 잡초처럼 하찮고, 누룩처럼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다.
- 예수님은 누룩처럼 잘 보이지는 않지만, 조용히 그리고 내적으로 사람들의 삶과 공동체 전체에 변화를 주신다.
-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, 외형적으로 백향목같이 화려하지는 않지만, 많은 사람들을, 심지어 부정한 이들과까지도 품으시는 분이시다.
- 천국(하나님의 나라)는 마치 이와 같다.

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되고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순간에 일어나는 대혁명이거나, 백향목같이 화려하지는 않게 임한다. 성공에 매몰되고 성장을 추구하던 이들의 가치를 뒤집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. 하지만 결국 많은 이들을 배려하고 환대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.

[다음 강의(10/26)]

마태복음 13:44-46 “감추인 보화, 진주 비유”

[새번역 성경]

세 가지 비유

44 "하늘 나라는, 밭에 숨겨 놓은 보물과 같다.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, 제자리에 숨겨 두고,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,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."

45 "또 하늘 나라는,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."

46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, 가서,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것을 산다."

[새한글 성경]

세 가지 비유

44 "하늘나라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과 같습니다.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감추어 두었어요. 그리고는 기뻐하며 가서,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."

45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들을 찾고 있는 상인의 경우와도 같아요."

46 값나가는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, 가서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."

[메시지 성경]

44 하나님 나라는 오래도록 밭에 감추어져 있다가 그 결을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찾아낸 보물과 같다. 찾아낸 사람은 기뻐 어쩔 줄 몰라서 '이게 웬 황재냐!' 하며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다."

45-46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진주를 찾아다니는 보석상과 같다. 흠 없는 진주를 만나면, 그는 즉시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산다."